



금융 지표 추이

	2006				2007				
	2/4	3/4	4/4	연간	1/4	2/4	4월	5월	6월
■ 금융기관수신 <sup>1)2)</sup> (백억원)	25.9	11.9	23.1	47.9	0.4	42.9	14.4	14.9	13.5
[예 금 은 행]	21.6	13.5	-7.0	13.1	-5.4	32.0	16.9	11.7	3.4
[비은행기관]	4.3	-1.6	30.1	34.8	5.8	10.9	-2.5	3.3	10.1
■ 금융기관여신 <sup>1)2)</sup> (백억원)	10.2	21.0	29.6	57.1	-8.9	22.5	15.1	5.8	1.6
[예 금 은 행]	7.1	10.0	13.2	31.6	0.0	16.1	11.6	3.5	1.0
[비은행기관]	3.1	11.0	16.4	25.5	-9.0	6.4	3.4	2.3	0.7
■ 어음부도율(%)	0.05	0.06	0.07	0.07	0.10	0.10	0.10	0.10	0.11
■ 자금사정BSI <sup>3)</sup>	65	74	70	68	71	69	..	..	..

주 : 1) 기간중 증감액 기준

2) 2007년 1·4분기 및 3월은 추정치

3) 지수(기준치 = 100)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의 문화 .....

돌하르방 제자리 복원 운동

제민일보 문화체육부 차장 · 현 순 실



돌담, 제주조랑말, 돌하르방, 해녀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제주인의 유구한 역사, 삶과 더불어 뒀던 맥박이다.

제주해상왕국 탐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 다양한 민속 콘텐츠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가령 돌하르방(제주도민속자료 제2호)을 보자. 나무, 산, 바다, 바람, 비, 구름, 안개 등등이 자연현상에 부여된 신격의 여러 모습들을 하고 있다. 획일적이지 않는 자유자재함으로 민속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돌하르방은 돌과 바람으로 집약되는 제주의 각박한 풍토적 여건을 이겨낸 지혜의 문화이며 강인 불굴의 정신을 녹여낸 문화이다.

제주해상왕국 탐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 다양한 민속 콘텐츠를 살아 숨쉬는 360여개가 넘는 오름과 희귀한 동굴들, 제주의 풍요를 기원하는 당굿과 입춘굿놀이, 초가,

돌하르방은 보기 드문 것들이고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상생활에서는 잊혀지거나 퇴색된 것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손쉽게 버려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또한 안타까운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도다우려면, 또한 제주도가 제주도답게 특색 있게 개발하려면 이 민속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재론할 여지가 없다.

올해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인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돌하르방의 특질이 사라지지 않게 변용토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요, 그러한 방향에서 보존과 개발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주해상왕국 탐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화산섬이라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 다양한 민속 콘텐츠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글은 귀중한 옛 제주성을 수호하고 옛 제주사람들의 불



굴의 기상을 상징했던 제주 민속유물인 제주시 돌하르방들이 도내외 공공기관의 장식물로 둔갑한 현실을 고발한다.

또한 제주시 돌하르방들의 제자리 복원과 이들 돌하르방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책 마련을 촉구한다.

## 들어가면서

**제주인을 닮은 민속문화** 제주의 전통문화는 끈덕지다. 그것은 굴곡 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역처럼 즐기차게 살아온 제주인의 삶과 닮아 있다. 돌하르방을 보자. 다공질 현무암을 다듬은 돌하르방은 인고와 괴로움을 딛고 비바람 속에도 꺾이지 살아온 제주인의 얼굴이다.

제주목의 돌하르방은 비뚤어지게 쓴 감투와 뚱뚱한 눈망울에서 무인의 호방한 위업을 엿볼 수 있다. 정감 넘치는 대정현의 돌하르방, 날카롭되 단정한 인상의 정의현의 돌하르방 역시 제주인의 울곧은 정신의 맥을 잇고 있다.

**돌하르방 어디 갔수과** 돌하르방은 정확히 누구에 의해 몇 기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754년(영조 30년) 목사 김몽규(金夢奎)에 의해 세워졌다는 기록은 나와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등 현청소재지의 성문 앞에 나란히 세워졌던 석상이다. 이 석상은 수호신적 기능과 주술적·위치표시적 기능을 해왔다.

‘돌하르방’이란 명칭으로 통용된 것은 지난 1971년 8월26일 제주도문화재위원회에서 민속자료(제2호)로 지정하면서 부터이다. 그 전에는 벽수머리, 우성목, 무성목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다. 돌하르방은 제주·정의·대정 세 곳의

동·서·남 세문 입구에 길 양옆으로 쌍쌍이 세워졌다. 현재 남아 있는 돌하르방은 47기. 제주시 21기, 정의현 12기, 대정현 12기(돌하르방 47기에 대해 학자에 따라 49기로 기록돼 있다. 제주시 돌하르방 역시 23기로 기록되는 등 학자에 따라 돌하르방 기수에 대해 이견이 있다). 정의현,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제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의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나머지 19기는 제주대·제주공항공사·제주시청·삼성혈·목석원·제주KBS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무슨 연유에선지 70년대를 목전에 두고 제주시 돌하르방 21기가 ‘마파람에 게눈감추듯’ 사라져 버렸다.

**돌하르방 집단 이전 왜** 제주목의 돌하르방이 원위치를 벗어나 뿔뿔이 흩어진 것은 1960년대 들어서부터. 제주목의 동·서·남문을 지켰던 돌하르방 25기 중 21기가 제주대학교(4기), 제주시청(2기), KBS제주방송국(2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기), 삼성혈(4기), 관덕정(4기), 공항(2기), 목석원(1기)으로 옮겨졌다. 제주시 돌하르방들이 집단 이설된 사유나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1960년대 제주시 도로포장공사로 인해 돌하르방이 집단 이설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당시 지역언론 기사를 보면 ‘제주성 동문에 있던 돌하르방 2기가 경북궁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길 것을 도교육위원회가 승인하였다’ (제주신문 67년3월20일자)고 나와 있다.

그 당시 ‘도교육위원회 당국자가 돌하르방이 전국적인 선양을 위해 한국민속관 전시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민속학회 일부에서는 현장보존을 역설했다’고 전하고 있다.

## 문화유산 이전, 행정이 진두지휘?



이후 돌하르방 이설 움직임은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초기 돌하르방의 실태를 조사, 기록했던 민속학자 현용준씨(전 제주대 교수)는 “제주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모 유명 민속학자가 서울로 전근하면서 돌하르방 2기를 대동하고 갔다”면서 “당시 도청 공무원의 진두지휘하에 돌하르방을 가마니로 싸서 경북궁까지 선박, 기차로 나르는 등 돌하르방 이설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돌하르방의 이설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도청 학무과장은 자신이 문화재 관리를 하는 당사자로서 돌하르방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돌하르방은 각 기관으로 옮겨진 이후 7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화재(제주도민속자

료 제2호)로 지정됐다.

제주시 돌하르방은 1기도 남김없이 역사의 현장을 벗어났다. 작은 유물도 아니고 거대한 석상들이 원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돌하르방 소장 기관들의 코멘트** 60년 당시 제주시 돌하르방 2기가 이전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이곳에 이전된 돌하르방 2기(유물번호 1809·1810)의 유물카드에는 ‘명칭 우석목, 입수일자는 1967년 9월8일, 입수연유는 기증품’으로 기록돼 있다.

유물카드는 또 이전 당시 돌하르방 2기가 제주시 동문통 옛 성문입구에 세워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돌하르방 이전 경위에 대해 67년 당시 돌하르방 운반책임이었던 원로 민속학자 장주근씨(전 경기대 교수)는 “40년이 지난 얘기라서 기억이 선명치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당시 문교부 소속의 제주도 문화재관리국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돌하르방 이전 절차를 밟았고, 난 운반하는 일만 맡아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문화재관리국 계장이란 이조차 돌하르방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모르더라”면서 “당시 돌하르방 사진을 보면 돌하르방 몸뚱이가 땅에 묻히거나, 돌하르방에 타이어가 끼 넣는 등 제주에서 돌하르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소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장 교수는 “외려 다른 지역 학자들이 돌하르방의 치켜진 눈꼬리, 자루병 코, 등근 통망울 눈에 매료됐다”고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다른 지역 학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인지 돌하르방의 제주시역 복원, 즉 현지 위치로의 이전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돌하르방 복원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유물이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견해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정종수 유물과학과장은 “국가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쫓기에 국가의 고유 유물이다”면서 “돌하르방의 제주도 이전을 위해선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돌하르방이 지역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느니, 한해 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제주의 관리·인적·물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유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돌하르방 원위치 이전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 외에 제주시 돌하르방 21기의 소유자인 제주지역 각 공공기관들의 입장 역시 국립민속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기관장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돌하르방 원위치 복원하면 뭐하느냐”는 입장이다.

허리 꺾인 돌하르방(남문로 만수당양방 앞 우물골목 소재) 1기를 목석원으로 이전했던 백운철 목석원 원장은 “돌하르방을 무작정 제 위치에 놓고 해도 현재 주변환경과 어울리겠느냐”면서 제주성 복원사업 등과 맞물려야 돌하르방 원위치 복원 얘기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제주시장 역시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서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복원과 관리정책 문제는



제주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한 후 원형 복원이나 차선택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 자연사박물관, 제주대학교 등은 원형 복원보다 분산 배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돌하르방 관리정책 ‘구멍’** 제주시 돌하르방들이 각 기관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돌하르방 기석이 대부분 유실됐다. 기석이 유실되니 돌하르방이 지닌 정주석의 개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돌하르방 기석은 60년대 도로포장 공사시 아스팔트에 매몰되거나 돌하르방 기둥만 뽑혀갔다. 현재 관덕정 정문에 위치한 돌하르방들은 트럭에 받히는 사고가 끊임없었으며, 지금도 보호책 없이 외지인에 쉽게 노출된 상태다.



시청 돌하르방들은 주차장에 인접해있으면서 보호철책 등도 없어 언제 훼손될지 모를 운명에 처해 있다. 제주의 얼굴인 제주공항에서마저 돌하르방의 수모는 여전하다. 현재 제주공항 직원 주차장을 지키는 돌하르방 2기는 기석과 기둥이 정반대로 배치돼 있거나, 기석이 부서져나가거나, 주변 공항시설물에 가려지는 등 크게 파손된 상태다. 이외에 KBS제주방송국, 목석원 등의 돌하르방 역시 일부 훼손된 상태 또는 외부에 노출돼 있어 언제라도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돌하르방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혀 인식

하지 못했던 제주도의 전적인 책임일 것이다. ‘제주민속문화의 해’를 위해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름 아닌 돌하르방의 복원 내지 제대로 관리정책이다.

『이벤트성 행사』라고 지적되고 있는 25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제주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25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정부, 지방정부가 쏟아부으면서 정작 돌하르방 관리정책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풀어놓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저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를 종자 삼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이때 국내 대표급 관광지를 자처하는 제주도가 제 고장의 역사, 문화를 다듬는 일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르방들이 쏟아진다. 관광상품으로, 문화상품으로, 박물관 마스코트로. 심지어 하르방이 윙크하며 나는 시대(‘제주에어’ 로고)가 왔다. 이 ‘아류들’에게도 분명 전통의 맥이 흐른다. 제주도 문화유산(제주도민속자료 제2호)으로 지정된 돌하르방 48기가 바로 그렇다. 그 중 제주성에 위치해 있던 돌하르방 24기는 1960년대를 전후해 명분 없이 제 자리를 떠났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돌하르방은 그럴듯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속자료 항목에선 빠져 있다. 제주 돌하르방의 신세는 더욱 애처롭다. 돌하르방에 대한 기관들의 소유 고집은 완강하다. 반면 돌하르방에 대한 관리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성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돌하르방 역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 성문이라도 옛 모습대로 복원을** 1960년대 제주시 돌하르방들은 1기도 남김없이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났다. 작은 유물도 아니고 거대한 석상들이 속수무책 제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일들이 국립민속박물관, 대학, 관청 등 국

가기관·지방기관에서 추진됐다. 제주시 돌하르방은 해당 기관들이 돌하르방을 이전한 7년 뒤에야 대정현·정의현 돌하르방과 함께 제주도문화재로 지정됐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돌하르방 2기는 도문화재가 아닌, 국가유물로 지정돼 있다. 당시 돌하르방의 운반책이었던 한 원로 민속학자는 “제주시 돌하르방 몸뚱이가 땅에 묻히거나, 돌하르방에 타이어가 끼 있었다”며 제주의 허술한 돌하르방 관리책을 성토했다. 제주시 돌하르방의 수난은 원위치를 벗어나면서 더욱 가혹했다. 도내 관공서에 소장된 제주시 돌하르방들은 문화재로 지정됐을 뿐, 훼손과 왜곡된 시설로 수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향토사학자인 강창언씨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 묻힌 돌하르방의 기막힌 사연을 보면, 오늘의 제주 민속문화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며 개탄했다. 제주시 돌하르방들이 원위치를 떠나 아스콘에 묻히고, 트럭에 채이고, 허리가 부러지는 수난에 대해 반성하고 돌하르방을 제자리로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93년 민속학자 김영돈의 언급은 아직도 유효하다. “문화재 보호의 제일원칙은 현장불변경원칙이다. 소중한 문화재는 그 자리에 고스란히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제 기능을 먼 후세에까지 남길 수 있고, 살아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 경우, 한 성문만이라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돌하르방도 원위치 복원을 심각히 헤아려 봐야 한다.”